

인천시, 올해 7개 학교에 숲 추가 조성

관내 총 537개 초·중·고등학교 중 386개소 조성, 조성율 71.8%

인천시가 올해 관내 7개 학교에 학교 숲을 추가로 조성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고 학생들의 자연체험학습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학교숲을 4월부터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구(신광초)와 미추홀구(인하사대부중·서화초), 남동구(주원초·논현고), 부평구(청천중·부흥중) 등 7개 학교(6천577㎡)에 학교숲이 조성되면, 인천시에는 총 386개소(33만7천㎡)에 학교숲 조성이 완료된다.

이는 인천시 관내 총 537개 초·중·고등학교 중 71.8%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천시는 2003년부터 20년 동안 청소년 정서함양과 자연체험학습을 위해

학교숲을 조성했으며 2022년도에는 부광여자고등학교가 산림청으로부터 최우수상(관리운영분야)을 수상한 바 있다.

학교숲은 교내 유휴공간 및 녹지를 활용해 학교 구성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모아 숲을 조성함으로써 도심 녹지량 확충과 학교환경개선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인성발달과 아름다운 학교 경관 조성에 기여한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학교숲을 비롯해 어린이들의 통학안전과 학교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4개소 3천450㎡)도 조성 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숲을 조성·확대해 맑고 푸른 인천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인천시 제공

박형남 기자 / jnghapnews.com

◆서구

중소기업 청년 복지공유·캠핑장 이용권 참여 접수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중소기업 청년 '복지공유' 사업으로 오는 6월 10일 사용 가능한 노을진 캠핑장 이용권 30개를 마련하고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캠핑장을 운영하는 수자원환경산업진흥과 '중소기업 재직청년 복지공유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구가 제공하는 노을진 캠핑장 시설은 카라반 2인용 9개, 3인용 6개, 캠핑사이트 15개 등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청년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에서 오는 4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자격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추첨해 이용자 3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결과는 오는 4월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아울러 서구는 이 기간 서구 중소기업 복지공유제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SNS, 블로그 등에 홍보물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지역화폐 1만 원을 지급한다.

서구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으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 jnghapnews.com

◆강화군

2023년 교동면 분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



/강화군 제공

강화군게이트볼 연합회(회장 유춘규)는 지난 25일 교동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유철호 군수를 비롯해 박승한 군의회 의장, 박용철 인천시의원, 한승희 군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교동면 분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교동면 게이트볼분회에서 주최하고 교동면 체육진흥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파스산 분기운을 받으며 30개 팀 250여 명의 선수와 관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전일제 교동면 게이트볼분회장은 "오늘 대회는 승패를 떠나 심신을 단련하고 노년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한 즐거운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철호 군수는 축사를 통해 "이번 게이트볼 대회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군민 단합을 위한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궁호범 기자 / jnghapnews.com

인천 중구, 운남동 다세대주택 붕괴 응급 복구 적극 지원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정현)가 운남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무너진 응벽에 대한 응급 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해당 응벽은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던 지난해 8월, 일부가 붕괴했던 곳으로 당시 긴급 복구공사가 추진된 바 있다.

다만, 올해 초 있었던 '해빙기 위험시설 안전 점검'에서 복구 구간 중 일부가 훼손된 것이 확인, 김정현 중구청장이 철저한 안전 관리를 거듭 지시한 데 따라 이번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를 위해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

원 사업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관리 지원금을 응급 복구 공사비용으로 투입하게 됐다.

특히 빌라 응벽은 사유지로 건물 소유자들이 관리하고 원상 복구해야 하나,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 주민 안전을 위해 우기 이전 완전 복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김정현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역 내 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더욱 강화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제공

박형남 기자 / jnghapnews.com

인천 동구, 건전 음주문화 조성 위한 금주구역 지정 고시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다.

동구는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0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총 112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며 술을 마

시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주구역은 화도진공원 등 도시공원 12개소, 아파트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81개소,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동구청소년수련관과 동구랑스틸랜드 어린이 놀이터 2곳 등 총 112 곳이다.

금주구역에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금주구역 지정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정착시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절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주구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남 기자 / jnghapnews.com



경인종합일보

구독문의 031·245·6008

꿈과 열정이 꺾이다

창작의 고통까지 불법복제 하시겠습니까?

무심코 한 불법복제로

수많은 창작자들의 꿈과 열정이 꺾이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뼈를 깎는 고통을 존중하는 것,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창작자의 꿈을 키우고 문화를 가꾸는 일, 바로 저작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저작권 찾기 사이트(www.right4me.or.kr)에서 권리는 자신의 저작권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권리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